

특집 : 도서관의 장서개발

대학도서관의 장서 폐기에 대하여

- K대학의 장서 폐기 사례를 중심으로



곽주원

경희대학교중앙도서관 사서
jkwak@khu.ac.kr

들어가며

20세기 후반의 출판량 급증과 자료구입비의 상승, 자료 소장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각 도서관에서는 협동수서와 자원공용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장서 폐기 문제는 이런 제약하에서 공간부족으로 인한 자원관리의 한가지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과제이다. 도서관 건물을 신축한 도서관들도 결국에 봉착하게 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료의 증가로 인한 보존공간의 필요로, 건물신축이 계속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장서 폐기는 원래 장서개발의 한 과정이다. 도서관이 자관의 목적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용시키는 전 과정 속에서, 그동안 축적된 각종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해 그 적절성을 평가하여 유용한 자료들은 보존하고,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자료들은 폐기하여 효율적 장서개발을 하기위한 한 과정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장서 폐기의 개념과 필요성 등을 알아보고, 국내 대학도서관의 장서 폐기 사례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들이 장서개발 특히, 적극적 장서 폐기에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해 본다.

장서 폐기의 개념과 필요성

제적(weed)은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즉 이용적 및 보존적 측면에서 소장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를 장서에서 제외시키거나 기록까지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폐기(Discard)란 이용할 가치가 없거나 이용요구가 없는 자료를 처분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도서관 장서에서 제거하고 도서관 소장기록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장서폐기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효율적 도서관 소장공간활용을 위해서이다. 도서관 장서의 규모는 물리적 제약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군다나 장서 포화량이 적정 수준을 넘은 상태에서는 기존의 장서를 재구성하여 여분의 공간을 계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도서관 신축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는 소장공간의 부족현상은 되풀이되는 악순환일 수 밖에 없으므로, 장서 폐기는 모든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된다.

둘째는 장서의 최신성 유지를 위해 장서 폐기는 고려되어야 한다. 일정 시점이 지나 최신성을 잃은 노후자료들의 수가 많아지면, 새로운 자료를 계속 등록하더라도 최신 자료가 눈에 띄지 않게 되고, 탐색시간도 지연시키게 되며, 이것은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 파레토의 법칙이 도서관에도 적용되어, 도서관 최신 장서 20%가 대출순위 8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모든 장서가 이용가치 우선으로 평가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반대의 견해도 있지만, 도서관의 존재가치가 이용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유도 있다.

셋째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이다. 이는 장서의 거대화가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로 장서량이 점점 비대해짐에 따라 장서관리에 드는 시간과 인력, 각종 유지 비용에 드는 경제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이용률이 적은 장서는 다른 기관에 기증이나 이관하고, 자관의 목적과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장서만 개발함으로써 도서관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할 것이다.

파레토의 법칙이 도서관에도 적용되어, 도서관 최신 장서 20%가 대출순위 8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모든 장서가 이용가치 우선으로 평가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반대의 견해도 있지만, 도서관의 존재가치가 이용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유도 있다.

장서 폐기의 저해요인

이러한 장서 폐기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장서 폐기가 실행되고 있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대학마다 각종 평가지표로 장서수의 점수비중이 높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의 기준을 생각할 때, 양적 가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이용자 서비스 위주의 평가를 하게 된다면, 장서 폐기는 오히려 장서수의 크기와는 별개로 장서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폐기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두 번째 저해요인은 폐기 기준 설정과 방안 수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폐기 기준을 객관적 데이터(각종 대출기록, 서가 대기기간 등)로 하더라도, 폐기된 자료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경우 사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타도서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협력업무가 해결방안이 될 것이고, 국가나 지역단위의 자료보존관이 그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다.

세 번째는 사서 내부의 책에 대한 경외심 등의 심리적 요인이다. 특히 폐기를 한번도 해 보지 않은 도서관에서 발생하기 쉬운 심리적 장벽이다. 이것은 폐기 전에 충분한 내부 토의와 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장서 폐기의 절차, 사후처리

장서폐기의 평가 기준은 장서중심의 평가법과 이용중심의 평가법으로 나뉜다. 주요 방법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폐기 기준은 객관적
기준인 자료의 수명(출

<표 1> 폐기의 평가 기준

판년도 기준 등)과 각종 이용기록(대출기록, 서가 대기기간 등)으로 선정하는 방법과 전문가(사서, 교수, 해당 분야 전문가 등)에 의한 선정방법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로 포괄적인 범위만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해당 도서관의 내규에 폐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로 폐기작업에 들어갔을 때 문서에서 근거로 삼을 관련 조항이 명시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이용중심의 평가 근거를 폐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폐기절차나 처리 방법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이 기준은 새로운 「도서관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2007.4.5.부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편집자 주).

K대학교 사례

최근 4년제 사립대학교인 K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장서 폐기 작업을 진행했다. 여기에서 그 작업 과정과 처리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앞으로 장서 폐기 작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중인 대학도서관에서 그 장단점을 파악하여, 폐기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K대학교 도서관의 일반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장서수 100만여권, 열람석수 2천여석으로 개관한지 58년이 되는 종합대학교의 도서관이다. 중앙도서관과 4개의 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서 폐기작업은 1996년(단행본 10만여권), 1999년(단행본 6만여권), 2006년(단행본 2만여권)에 이루어졌다. 최근에 진행된 장서폐기의 개관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폐기도서의 도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 훼손 또는 오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자료
- 필요이상의 복본자료
- 첨단매체로 대치되어 보관가치를 상실한 자료
- 1953년 이전의 자료는 보관하기로 하되 복본일 경우에는 제외함
- 창간호와 보관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는 보관을 원칙으로 함

<표 2> 최근 진행된 장서폐기 현황

폐기자료 심의 기간	2006년 4월 ~ 2006년 9월
폐기 자료수	단행본 18,328권 (동서 11,428, 양서 651, 문고판 6,249)
폐기 방법	1차 이용기록, 복본수 참고 대상 자료 추출 2차 폐기도서 평가단 작업(도서관 과장단 이상 참여)
사후 처리방법	폐기도서 선정 -> 내부 기안 상신 -> 폐기도서 전시회 -> 타기관기증(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 기타 도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등록번호, 바코드 오류, 기타 결번으로 처리된 자료들

사후 처리방법을 좀더 자세하게 소개하면, 먼저 폐기 처리된 도서를 대학교 교직원과 인근지역주민 대상으로 도서관발전기금(권당 1,000원 이상)을 받고 인계하였다. 불용(제적)도서 전시회는 방학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과, 국문과 관련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약 800여권의 책이 참가자들에게 기증되었다. 수익금은 도서관 명의로 학교 대외협력처에 입금처리되었다. 나머지 책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기증도서를 공공도서관이나 유사기관에 재기증하는 기관인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에 기증되었다.

폐기 절차에 대한 약간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장서수 문제로 폐기문서가 학교 심의부서에서 통과가 안되어, 부서장이 부전지를 달고 다시 몇 번씩 설득작업을 하여 결재시기가 약간 지연된 일도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저해요인 중 한 가지가 학교 차원에서도 문제시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폐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장서개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설명한다면 넘지 못할 장애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폐기 작업은 선정에서부터 처리과정, 사후처리까지 한 단계도 쉽고 단순한 일이 없다. 적극적 장서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는 선정되지 말아야 할 자료들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작업 전에, 또 폐기 작업 중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의 과정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

폐기 작업은 선정에서부터 처리과정, 사후처리까지 한 단계도 쉽고 단순한 일이 없다. 적극적 장서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는 선정되지 말아야 할 자료들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작업 전에, 또 폐기 작업 중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의 과정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나오며

장서 폐기는 장서회전율과 공간활용도 높일 수 있는, 아주 어렵고 힘들지만 보람된 작업이다. 그동안 폐기에 대해 고민만 하던 도서관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선정위원회를 준비하여 작업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제 장서수가 자랑이 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알차고 값진 정보들로 가득찬 도서관이 이용자

들을 유인할 수 있다.

폐기자료 선정작업은 단기간에 넘어야 할 산은 아니다, 오랜기간 준비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손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예술작품과 같다.

앞으로 더 많은 도서관들이 그동안 미루어온 숙제에 관심을 가지고, 장서 폐기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기대한다. 

참고문헌

- 박상익. 2006. “자료의 폐기정책.” 『학술정보교류협의회 구독분과워크샵』. 1-9
- 윤희윤. 1999. 『장서관리론』. 서울: 태일사.
- 이은철. 2000. “장서폐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 37(1) : 3-22.
- 이정원. 2003. “대학도서관의 장서관리.” 『KERIS 대학도서관 실무자 세미나 수서분과』. 420-431.
- 허기영. 2001. “장서폐기의 필요성과 폐기기준에 대한 고찰.”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식지』, 14.

